

17년째 영가 극락왕생 기도

신행연장

포항 대성사 청년회 '독경 봉사행'

현충일인 지난 6일 오전 8시 포항시 대동동 현대스마트 사무실.

청년들의 발길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10여 명 남짓한 사무실이 청년들로 북적거린다.

이들은 다름 아닌 포항 대성사 청년회원들. 평일이나 공휴일이나 항상 바쁜 청년들이 사무실에 모인 까닭은 무엇일까.

언뜻 보기에는 법회를 위한 모임도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정된 옷차림을 한 청년회원들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숙연한 분위기가 감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까닭은 기제면 용화사가 주최하는 6·25 참전용사 위령제에 참석해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기도를 올리기를 위한 것. 이들은 위령제에 참석해 우렁찬 음성으로 참전용사를 위한 <금강경> 독송을 함께 했다.

이렇게 대성사청년회원들은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참석해 영가를 위한 기도를 올려주고 있다.

5월 19일에도 대성사 신도회 고문의 빈소인 포항가톨릭병원 영안실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금강경>을 목탁소리에 맞춰 경전을 독송했

다. 그러자 떠들썩했던 빈소가 조용해지면서 저녁공양을 하고 있던 사 람들, 소주를 마시고 있던 사람들 등 모두가 앉은 자리에서 청년회원들의 독경을 따라 하며 영가를 위한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렸다.

특히 이날은 특별히 대성사 주지 운봉 스님도 참석해 유가족과 함께 30여 분간 독경을 하며 영가의 극락

을 가는 논공의 모내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성사 청년회가 '상가 독경'을 시작한 것은 지난 84년 창립하면서 부터다. 작은 일이지만 성의를 다하는 고인의 청년회원들의 자비행은 지역 불교계에 잔잔한 귀감이 되고 있다.

17년 동안 회원들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상가독경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상가독경은 갑작스레 이뤄진다. 보통 하루 전에 회원들에게 알려지는 만큼 약속이나 회사일 관계로 빠지기 쉽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17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회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25명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독경에 대한 청년들

의 관심은 높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상가 조문과 천도 독경은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 청년회원들의 연결같은 목소리다.

지금은 신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선배 회원의 경우 승용차에 목탁과 경전을 싣고 다니며 주위에 초상이 나면 밭뽕고 나서서 독경을 할 정도다.

회장 김익수 씨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위한 상가 독경은 죽은 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유주무주고 혼들을 위한 천도이자 결국 나를 위한 천도이기도 합니다"며 "불자들이 서로의 애경사에 참여해 슬픔은 반으로 줄고, 기쁨은 두 배로 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오성락 포항 지사장



포항 대성사 청년회원들이 영안실에서 상가독경을 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해 주고 있다.

어 가는 논공의 모내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성사 청년회가 '상가 독경'을 시작한 것은 지난 84년 창립하면서 부터다. 작은 일이지만 성의를 다하는 고인의 청년회원들의 자비행은 지역 불교계에 잔잔한 귀감이 되고 있다.

17년 동안 회원들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상가독경은 계속되고 있다. 사실 상가독경은 갑작스레 이뤄진다. 보통 하루 전에 회원들에게 알려지는 만큼 약속이나 회사일 관계로 빠지기 쉽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17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회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25명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독경에 대한 청년들

의 관심은 높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상가 조문과 천도 독경은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 청년회원들의 연결같은 목소리다.

지금은 신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선배 회원의 경우 승용차에 목탁과 경전을 싣고 다니며 주위에 초상이 나면 밭뽕고 나서서 독경을 할 정도다.

회장 김익수 씨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위한 상가 독경은 죽은 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유주무주고 혼들을 위한 천도이자 결국 나를 위한 천도이기도 합니다"며 "불자들이 서로의 애경사에 참여해 슬픔은 반으로 줄고, 기쁨은 두 배로 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오성락 포항 지사장

의 관심은 높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상가 조문과 천도 독경은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 청년회원들의 연결같은 목소리다.

지금은 신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선배 회원의 경우 승용차에 목탁과 경전을 싣고 다니며 주위에 초상이 나면 밭뽕고 나서서 독경을 할 정도다.

회장 김익수 씨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위한 상가 독경은 죽은 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유주무주고 혼들을 위한 천도이자 결국 나를 위한 천도이기도 합니다"며 "불자들이 서로의 애경사에 참여해 슬픔은 반으로 줄고, 기쁨은 두 배로 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오성락 포항 지사장

의 관심은 높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상가 조문과 천도 독경은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 청년회원들의 연결같은 목소리다.

지금은 신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선배 회원의 경우 승용차에 목탁과 경전을 싣고 다니며 주위에 초상이 나면 밭뽕고 나서서 독경을 할 정도다.

회장 김익수 씨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위한 상가 독경은 죽은 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유주무주고 혼들을 위한 천도이자 결국 나를 위한 천도이기도 합니다"며 "불자들이 서로의 애경사에 참여해 슬픔은 반으로 줄고, 기쁨은 두 배로 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오성락 포항 지사장

주제가 있는 법문 "한국불교 잘되고 못하고 인재양성에 달려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양마는 채찍 그림자만 보고 달려들며 중마는 채찍이 살결에 닿아 달려들며 소마는 채찍을 휘두르고 소리를 치고 주인이 눈을 부라려야 겨우 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는 최첨단 정보과학의 시대입니다. 옛날 농경 사회 때, 소달구지를 타고 양반 상놈 따지고 자자손손 부귀영화의 꿈을 꾸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한 폭의 동양화 같고 한편의 인생 드라마 같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급속히 전개될 줄 알았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과거를 돌이켜 보고 반성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행복을 위한 삶의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권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지도자들이 넓은

봉사나 보시만 강조

절 밖으로 내모는 것

안목으로 미래를 철저히 준비했으면 아마 지금보다 몇 배 사람살기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불교의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해법을 구상해보곤 합니다.

인재양성에 대한 사찰이나 교계 단체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정년퇴임은 고사하고 10여년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런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산중에 앉아 사찰을 찾아오는 불자들의 입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세상의 여러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시대상을 보면 5년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나는 불교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람살기가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불교의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해법을 구상해보곤 합니다.

인재양성에 대한 사찰이나 교계 단체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정년퇴임은 고사하고 10여년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런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산중에 앉아 사찰을 찾아오는 불자들의 입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세상의 여러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시대상을 보면 5년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나는 불교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람살기가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불교의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해법을 구상해보곤 합니다.

인재양성에 대한 사찰이나 교계 단체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정년퇴임은 고사하고 10여년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혜철스님

상주 황령사 주지

그렇다고 월급이나 복지 등에 대한 혜택이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봉사나 보시만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주지나 단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중무원까지 그만뒀다 하는 현실입니다.

실지어 인재양성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불교 밖으로 내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재들이 불교계로 올까닭이 없지요. 이것이 시대적 변화에 비해 불교는 늘 뒤떨어져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단체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는 존엄한 법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과 사를 지키지 않을 경우 먼저 지도자는 믿음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훌륭한 인재는 등을 돌릴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속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개성이 없어 뒷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마장이 오게 됩니다.

그 마장을 잘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존엄한 법도는 다시 말하자면 상과 벌입니다. 상과 벌이 없다면 아무리 좋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훌륭한 지도자는 사장이 되고, 범용자들은 이 세상에 남지 않고 있습니다. 채찍 그림자만 보이도 달릴 줄 아는 양마와 같이 훌륭한 인재들 발굴할 줄 아는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 불교계는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인재양성이 구호뿐 아니라 각 사찰이나 단체에서 인재양성을 위해 인재를 등용시키는 문을 넓히고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런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산중에 앉아 사찰을 찾아오는 불자들의 입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세상의 여러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시대상을 보면 5년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나는 불교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람살기가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불교의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해법을 구상해보곤 합니다.

인재양성에 대한 사찰이나 교계 단체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정년퇴임은 고사하고 10여년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신행 캘린더

6월 21일(목)

■도시철도공사 법우회 정기법회=도시철도공사 법우회는 오후 7시 30분 서울 답십리 관공정사에서 주지 경덕 스님을 법사로 6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31)820-7700

6월 22일(금)

■교불련 조찬모임=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오전 7시 롯데호텔 36층 피코홀에서 조계종 정대스님과 부장급 스님들을 초청, 교불련 회원들과 함께 조찬 모임을 갖는다. (02)720-6618

6월 23일(토)

■공불련 성지순례법회=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24일까지 순천 송광사에서 전국 50여 기관 불자회 회원들이 동참하는 제2회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한다. (02)721-9198

■부처님 나라 합동수계법회=유니텔 불교동우회 부처님 나라는 24일까지 부산 해운정사에서 전국 단위의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3479-4508

■사찰안내 자원봉사자연수=조계종 포교원은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8시까지 해인사 휴재암 및 가야산 내 암사에서 외국인 대상 사찰안내 자원봉사자 및 관광가이드 연합연수를 실시한다. (02)720-7060

■이전 및 개원법회=대한전통불교연구원은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월운스님(봉선사 조실)을 초청해 '이전 및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02)445-8484

6월 24일(일)

■대불어연꽃문화제=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 부산지구(회장 지현)는 범어사에서 '해맑은 어린이, 희망찬 미래'라는 주제로 제17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051)818-7187

■성불회 산사음악회=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는 오후 7시 20분 태전사 경내에서 성불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마음으로 부르는 산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042)821-2546

6월 25일(월)

■금강회 정기법회=경산조계종 금강회는 오후 7시 30분 경북 경산시 금강원에서 주지 증악스님의 집전으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53)810-0272

6월 27일(수)

■포교원 '산사 만남' =조계종 포교원은 새벽 3시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봉화 청량사에서 국공립 및 사립대 불교 학자들을 초청해 '산사의 만남'을 개최한다. (02)720-7060

생활속의 불교

'나'라는 울타리를 허물어라

사랑 중에 가장 지고한 사랑은 불·보살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워낙 크고 넓어 대자대비요 일체 만물을 한 몸으로 보기에 동체대비이다.

인간끼리의 사랑에서 그에 비유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주기만 할뿐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며 자식을 닮아주지 않고 오로지 인내하는 사랑이요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사랑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영위한다. 아낌없이 주는 삶, 누구라도 감싸는 삶을 말할라치면 그런 성현의 뜻이라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나고 반문한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늘 불안·공포·고통·긴장에

시달리면서도 말이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건 부모가 자식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나'라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주는 모정(母情)을 닮은 사랑. 그런 사랑이 있는 곳엔 평안과 만족이 있다. 거기에 미움이나 적의(敵意)가 발을 붙일 수 없다. 억압·공격·학대·부정 따위가 따르지 않는다. 비방이나 기망 질시도 없다. 아니,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불멸에 쌓인 눈이그만 녹아 내리듯이 그렇게 녹아내린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상대를 지극하게, 사무치도록 사랑하면 그도 내게 그렇게 한다. 꽃이나 미물

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마음이 가지 않는데 상대가 내게 응해 울리가 없다. 고로 먼저 사랑해야 한다. 누구라도 감싸고 안아주어야 한다. 그러면 자식과 자식이 감응하듯이, 물과 우유가 잘 뒤섞이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응하고 서로를 찾는다. 마음의 화답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고로 사랑의 마음을 방사(放射)하라. 아낌없이 주는 마음을 내라. 넓힐 수 있는데까지 넓혀라.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정화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쇠신할 수 없다. 나를 바꿀 수도 없고 상대를 바꿀 수도 없다.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우리에게 준 가르침이다. 龍眼

기도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타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祈 禱

일타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혜국스님께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천수경 천수신앙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

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스님의 **영가천도**

영가천도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우룡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3,500원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철회·내면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온 것을 더욱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모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실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 는 불교를 띄어 보십시오. 가피가 끝났음이 어찌되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 값 3,500원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혜탈가 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에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각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